

광주학생 글로벌인재육성 대학·기업·시민단체 공조

이정선 후보

-대입 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은?
대입제도 정책은 크게 2가지 관점에서 살펴야한다. 첫째는 국가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2학년도 대입정책 논란은 중3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대학입시이다. 현재 중3 학생들의 경우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학년이며,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려면 최소한 1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10년 이후에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대학입시제도는 수능 전형보다는 학생부종합전형이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단점을 보완, 학생부 중심전형이 대입의 가장 중요한 전형이 되도록 해야한다. 두 번째는 지역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이다. 내가 사랑하는 광주 학생들이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지역대학, 기업, 시민단체와 함께 마련하겠다.

-광주학생들의 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학력이 하락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 2가지 있다. 바로 2015년까지 실시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와 해마다 발표하는 수능분석자료다. 기초학력미달 중학생들의 비율 순위의 경우, 국어는 2015년 6위(중간)에서 2016년 1위(최하위)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기초미달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학은 9위(상위)에서 3위(하위), 영어



선생님들이 아닌 시민들이 담당하게 하는 제도다. 광주시민교육지원청은 시교육청 1년 예산의 1%인 200억을 지원받아 운영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공문과 비효율적인 보고서, 교육감의 지적을 쓰기 위한 전시행정도 없애겠다.

-교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교권과 인권을 조화롭게 정착시킬 대책은?
첫째, 학생자치를 활성화하여 학생회 중심으로 학교와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는 힘을 키우도록 하겠다. 둘째, 학생-학부모-교사들이 '공동체 생활 협약'을 맺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가도록 돕겠다. 셋째, 교권 침해로 인해 치유

- 대학입시제도는 수능보다 학생부전형 위기에 처한 광주교육 구하기위해 출마
- 돌봄교실·학교폭력·진로취업 등 업무 시민들이 담당 광주시민교육지원청 신설
- 교원성과급 제도과 교원평가 폐지되어야

는 9위(상위)에서 2위(하위)가 되어 상위권 학생들은 공부를 못하게 되고, 하위권 학생들은 방치되는 교육을 한 것이다.

수능 성적도 마찬가지다. 2009학년도 수능에서 1등급 비율이 국어 1등, 수리가 2등, 수리나 1등, 영어 2등이었지만, 2017학년도 수능에서는 국어 3등, 수리가 6등, 수학나 5등, 영어 4등으로 처참하게 내려갔다. 수능 성적과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는 좋은 잣대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 만큼 좋은 교육을 받으므로 전학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

-왜 교육감이 되려고 하는가?
첫째는 위기에 처한 광주교육을 구하기 위해서다. 진보교육감 지난 8년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기초학력미달비율은 증가하고 수능성적은 갈수록 저하하여 '실력광주'는 이제 옛말이 됐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른 채 방치되거나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아이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미래가 없다.

둘째,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삶을 바꾸고 광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책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출마 후보 중 유일한 교육학 전공자이고 검증된 교육 전문가라고 생각한다. 창의적이고 가슴이 따뜻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광주교대를 대표하는 총장을 맡기도 했다. 총장 시절 광주교대를 전국 1위 대학으로 만든 검증된 교육행정가라는 것을 자부한다. 총장 퇴임 후에는 현장의 활동가들을 만나며 그분들의 값진 경험을 교육개혁의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을 만들었다. 이론 지식, 실천능력, 소통하는 리더십을 갖춘 나야말로 광주교육을 바꿀 책임자라고 생각한다.

-교사 행정업무 감경 요구에 대한 의견은?
나는 광주시민교육지원청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광주시민교육지원청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학교폭력과 상담, 진로취업, 학교부적응 소년 등의 업무는 이제

가 필요한 선생님들을 위한 법률지원과 심리치유를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

-성과급 지급과 연계되는 교원 평가에 대한 입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원성과급 제도와 교원 평가는 폐지되어야 한다.

-교사 선발권 등 사학과의 관계 설정은?
사학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광주의 실력을 이만쯤이라도 유지한 것은 사학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학부모가 공립과 등학교보다 사립고등학교를 더 선호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학의 노력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은 찬사를 드려야 한다. 저는 사학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자율과 책임, 다양성이라고 생각한다. 비리를 저지르는 사학이 있으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면 된다. 공정한 인사채용 시스템을 갖추도록 사학과 긴밀히 논의하겠다.

-자유 발원
교육에는 진보도 보수도 없다. 오직 좋은 교육과 나쁜 교육이 있을 뿐이다. 8년의 진보교육감은 '불통'과 '무능'을 보여 주었다. 끼리끼리 하면서 자기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 나쁜 교육정을 바꾸려면 혁신교육감이 필요하다.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고 우리 아이들만 생각하는 교육감이 되겠다.

-존경하는 인물 어머니, 고 임한영 교수님(은사님), 세종대왕
-감명 깊게 읽은 책 생애의 지도, 시간은 어떻게 인간을 지배하는가?, 물입의 즐거움
-감명 깊게 본 영화 글레디에이터, 변호인, 1987
-장·단점 약자를 위한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봉사활동 등 상대방을 잘 믿고 도와주다가 손해를 보기도 함.

광주 성적 전국 최상위권 학생·교사 명예훼손 말라

장휘국 후보

-대입 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은?
현재 가장 큰 교육적폐는 대학입시제도다. 입시경쟁 교육의 폐단이 교육의 본질을 잃게 했으며, 초·중·고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아갔다. 정부가 고교 교육과정이 대학입시에 좌우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대입제도 5년 예고제 실시하고, 수능은 모든 교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확보 방안도 필요하다.

-광주학생들의 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광주학생들의 성적은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이다. 실력 광주 위상이 추락했다고 자꾸 말하면 현장에서 열심히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와 공부를 전념하는 학생들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걱정이다.

객관적인 자료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성적 결과 분석에 따르면 광주는 지난 13년 동안 표준점수 평균이 제주에 이어 전국 2위였다. 2014년에는 제주를 이기고 전국 1위도 기록한 바 있다. 반면 영역별 8~9등급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다.

-왜 교육감이 되려고 하는가.
문재인 정권과 함께 혁신교육을 완성하고 싶어서 도전하게 됐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교육정책은 지난 8년 동안 광주교육이 추진한 '혁신



후 사건화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 폐지하거나 최소한 중대한 사안과 경미한 사안에 대해 사안 처리를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대 사안의 경우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학폭심의위원회를 두어 다루도록 해야한다. 또 학폭대책자치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원화 되었던 재심과정을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경미한 사안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화해할 수 있는 갈등조정 기간을 두고, 화해가 이루어지면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성과급 지급과 연계되는 교원 평가에

- 누리예산 지키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막아
- 학교 업무 정상화 정책 지속 추진 계획
- 변호사·상담사 추가 채용 교권침해 대처
- 문재인 정권과 함께 혁신교육 완성할 것
- 교사 업무경감 위해 교육청 공문 50% 감축

교육'과 같다. 지난 8년 가운데 이명박 정권 3년, 박근혜 정권 4년, 7년간 온갖 필박과 방해로 힘든 기간이었다. 박근혜 정권 때는 우병우에게 불법사찰을 당하는 어려운 시기도 있었다.

저는 불의한 정권에 맞서 싸우면서도 진보혁신교육의 마중물을 길러냈다고 자부한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을 지켜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아냈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교육개혁을 성공시키는, 경험 있는 교육 조타수가 되고 싶다.

-교사 행정업무 감경 요구에 대한 의견은?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생활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업무정상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업무정상화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초등의 경우 교과 담당 교사를 추가 증원하고, 중등은 생활지도 교사에 대해 수업시수를 감축할 생각이다. 또 업무경감을 위해 교육청의 공문도 50% 감축할 예정이다.

-교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교권과 인권을 조화롭게 정착시킬 대책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센터 위상 강화로 교권과 학생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학교를 만들겠다. '교권보호긴급출동팀'을 만들어 교사들이 힘들어할 때 즉시 찾아가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 기존에 운영했던 '교권보호센터'의 역할과 위상도 강화하겠다. 변호사 및 전문상담사를 추가 채용해 교권 침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교육활동 중에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고로 인해 교원이 부담했던 법률적인 배상책임도 지원한다. '교원배상 책임보험'을 도입해 사고로 인한 소송 비용과 분쟁의 화해, 조정에 필요한 소송 비용 등을 배상해 준다. 또 '교원지유지원센터'를 설립해 힐링 직무연수를 진행하며, 상담과 치료도 병행할 계획이다.

학교폭력의 경우 생활기록부 기재 이

대한 입장은?
차등성과급과 연결되는 교원평가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이나 자기 진전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반면 교원들을 통제하고 서열로 나누는 도구로 전락해 교육 현장에서 수많은 갈등을 야기했다. 반드시 폐지해야한다.

-교사 선발권 등 사학과의 관계 설정은?
사학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공공성을 상실한 채 기업처럼 이익추구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사학의 신규교사 임용은 지역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적 파문도 일었다. 건전사학은 적극 지원하고, 비리사학은 엄벌하겠다. 사학의 운영에 있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사학의 신규교사 임용은 반드시 공립 신규교사 임용에 비례하는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자유 발원
지난해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권이 등장했다. 그동안의 성과를 그대로 이어가고, 막혀있던 개혁체제를 중앙정부와 발맞춰 진행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생각한다. '교실혁명'의 완성은 입시경쟁교육 혁파다. 교육적폐세력과 맞서 진보교육을 지키고, 혁신교육의 마중물을 길러낸 저 장휘국이 그 일을 해내고자 한다. 광주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장휘국의 손을 다시 한 번 잡아주시기 바란다. 반드시 혁신교육을 완성하겠다.

-존경하는 인물 김구, 리영희, 윤영규
-감명 깊게 읽은 책 배법일지(김구) 전환시대의 논리(리영희), 나는 선생님들이 좋아요(하타니 겐지호)
-감명 깊게 본 영화 벼랑, 죽은 시인의 사회, 흐르는 강물처럼
-장·단점 옳다고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나간다. 그것이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한다.

전인교육·실력광주 구현 균형잡힌 교육정책 펼 것

최영태 후보

-대입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은?
대입제도의 수립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은 학령인구의 감소와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하는 점이다. 선발과 번벌력 중심에서 초·중·고 교육 정상화와 미래교육 중심으로 대입제도의 패러다임을 혁신해야 한다. 국가적 차원의 정책은 국가교육회의의 숙의과정을 기다리겠다. 교육청 차원에서는 대학과 교육청 그리고 학부모가 참여하여 광주·전남 지역의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 그리고 이를 위해 입시체계를 어떻게 입안하는 게 좋은지를 논의할 것이다.

-광주학생들의 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첫째, 수도권 명문대 진학률은 현 장휘국 교육감 8년 동안 평균 60% 수준으로 떨어졌다. 둘째, 기초학습 부진학생의 비율은 최근 계속 증가(2015년 0.49%→2017년 0.96%)했다. 셋째, 상위학생과 중·하위학생의 교육격차가 위기 상황까지 이르렀다. 다른 무엇보다 학생들의 성적이 전체적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교사, 학부모의 공통된 의견이다. 상위 대학 진학을 하려, 학생 간 교육 격차의 심화, 기초학력 부족학생의 증가 추세에 대하여 현 교육감은 광주교육정책이 학생의 진학·진로지도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반성적 성찰부터 해야 한다.

-왜 교육감이 되려고 하는가?
성과급 지급과 연계되는 교원 평가에



겠다. 수업과 학생 지도 과정에서 건강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교사가 휴식하면서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특별휴가 제도를 추진하겠다

-성과급 지급과 연계되는 교원 평가에 대한 입장은?
현행 교원성과급은 폐지되어야 한다. 성과급은 기본급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교사들은 일반 직업군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능력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학생들의 스승인 그들에게 자존감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들에게 일반 공무원이나 회사원과 같은 방식의 성과급 제도를 강요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 미래교육 중심 대입제도 패러다임 혁신
- 경정보다는 협력·미래역량 중심 교육
- 교육청 불필요 공모사업 획기적 정비
- 학생들에 꿈·감성·창의성 교육 우선
- 잠자는 교실 타개해야 학습능력 향상

최하위 광주시교육청의 지난 8년의 초라한 성적표이다. 그런데도 교육감은 모두 남 탓을 한다. '잠 자는 교실'을 방치해놓고, 질문 없는 교실을 완성하겠다고 한다. 현 집행부는 교육문제를 정치용어로 변질시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교육의 중심에 세우기 위하여 교육감에 출마했다. 학교 교육이 학생의 현재와 미래의 희망의 도약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경쟁보다 협력, 지식에서 미래역량 중심으로, 인문학과 예술교육을 통한 문해력과 창의성, 감수성과 공감능력을 갖춘 똑똑하고 건강하고 따뜻한 학생 교육에 힘쓰겠다. 전인교육과 실력광주를 동시에 구현하는 균형 잡힌 교육정책을 펼치겠다.

-교사 행정업무가 많다는 지적이 여전히 있다.
교육청이 예산과 인사 및 평가권을 독점하고, 단위학교의 행정을 일일이 지시하고 감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생애네기 보고용 업무가 태반이다. 교육청의 불필요한 공모사업을 획기적으로 정비하겠다.

-교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교권과 학생인권을 조화롭게 정착시킬 대책은?
우리나라에서 교사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반면에 교사가 된 후 '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을 후회한다'고 응답한 비율(20.1%)은 OECD 국가평균(9.5%)보다 높다. 교사들을 힘들게 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데 주요 배경 중 하나가 교권침해이다. 교권침해는 교육청과 관리자의 부당한 지시와 통제, 학부모의 교육권 침해, 학생의 폭언과 폭력 등 그 발생 범위와 이유가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현실에 맞게 실효성을 거두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생의 학습권·인권과 교원의 수업권·교권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겠다. 교원의 건강 및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교원 힐링 센터를 설치 운영하

아니다.

-교사 선발권 등 사학과의 관계 설정은?
현재 교육청과 사립학교가 인사권 문제 등으로 대립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의 비중이 공립학교는 10% 미만인 반면 사립학교는 20-35%에 이르고 있다. 그 피해는 온전히 학생들과 교사 지망생들에게 돌아간다. 교육청과 사립학교의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은 교육감의 리더십 부족 때문이다. 교육청은 무엇이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 우선 순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또 소통과 조정능력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재단에 부정적 현상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다스리되 인사권과는 구분하여 처리하겠다. 사학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사 선발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

-자유발원
'잠자는 교실'을 타개하지 않는 한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과 교사의 자존감 회복은 불가능하다. 공교육의 부활도 어렵다. 해법은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꿈과 감성, 창의성을 심어주는 교육을 우선으로 하겠다. 이를 위해 진로교육, 맞춤형 및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겠다. 교사들의 강의기법 개발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민주도시 광주의 정체성에 맞는 교육감 후보임을 자부한다. 그러면서도 배타적 진보가 아닌 포용적 진보, 전인교육과 실력광주의 가치를 모두 중시하는 균형 잡힌 진보를 지향하겠다.

-존경하는 인물 안창호, 김대중, 박준(은사)
-감명 깊게 읽은 책 삼국지, 전환시대의 논리, 왜 학교 공간인가?
-감명 깊게 본 영화 선덕여사, 마지막 4중주, 히말라야
-장·단점 균형 잡힌 사고/ 외모에 무관심하다.
/정형호기자 khk@kwangju.co.kr